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omplex Sejong, 388, Galmae-ro, Sejong-si 30119, Republic of Korea

조 전

빛의 화가였던 화백님께서 “한 알의 빛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계실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혜자 화백님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평생에 걸쳐 한국적 빛의 세계를 천착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다채로운 재료와 색감, 형상으로 구현된 그림과 스테인드글라스의 한국적 이미지들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보여준 열정, 예술혼과 탁월한 성취에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빛을 통해 추구했던 평화, 사랑, 생명과 존귀함의 가치가 앞으로도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춰주길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